

<인물탐구>

한닝그룹 CEO, 리허권

김동하(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작성일: 2015년 5월 22일

1. 성장 배경

■ 한닝그룹 회장 리허권(李河君, 46세)은 2015년 후룬 부호 명단에서 알리바바의 마윈을 제치고 중국 1위의 부호로 올라선 인물이다

- 리 회장은 1600억 위안(약 28조원)의 재산으로 중국 부자 1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포브스의 세계 부자 순위에서도 108위에서 28위로 도약했다. 포브스는 그의 자산을 294억 달러로 추정 했다.
- o 후룬 부호명단에서 2위는 왕젠린(王健林·61) 완다(萬達)그룹 회장이 차지했다. 부동산 재벌인 그는 1550억 위안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1500억 위안의 재산으로 3위로 밀려났다.
- o 그가 부호 리스트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2013년(포브스 중국)인데, 665억 위안 자산으로 중국 내 4위를 차지했으며, 신에너지(태양광) 사업으로 리스트에 진입한 첫 번째 인물이 되었다.

■ 리허권은 1968년 8월, 광둥성 하원시에서 출생했으며, 광둥상인과 복건상인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객가인(客家人) 출신이다.

- 객가인은 '타향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한족의 지계이며, 세계 전역에 8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타이완 인구 15%가 객가인이고, 동남아에 거주하는 화교 대부분도 객가인이다. 객가인의 조상은 본래 중원지역의 한족이었다. 당나라 말엽과 송나라시대에 가뭄과 전쟁을 피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타지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이 때 객가인들도 강서성, 복건성과 광둥성이 교차하는 지역에 처음으로 거주지를 마련하게 된다.
- 객가인은 교육을 중시하여 문풍(文風)이 흥성했다. 이들의 선조는 중원의 사인 집단으로 높은 문화적 소양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가상인은 돈을 벌면 반드시 사원을 세워 후학을 양성했다. 객가인은 근면하고 어려움을 잘 견디며 스스로 노력하고 게으름을 피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객가인들이 광둥상인, 복건상인으로 탄생한 것은 놀랍지 않다.
- o 현재는 광둥, 복건 등 중국남부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8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산다. 언어는 고유어인 객가어를 사용한다. 태평천국의 창시자인 홍수전을 비롯해 쑨원·덩샤오핑, 타이완 前총통 리덩후이, 필리핀 정치가 아키노, 싱가포르 前총리 리관유 등도 객가인이다. 이미 해외로 많이 진출해서 각 지역 내에서 일정한 경제권을 형성한 이들은 매년 세계 객가대회(世界客属恳親大会)를 열어 전통을 계승하고, 그들만의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사진> 한닝그룹 CEO 리허권



자료: 한닝그룹 홈페이지 (2015.5)

■ 리 회장의 부모는 농민이었으며, 넉넉하지 않은 환경을 극복한 리 회장은 북방교통대(지금 북경교통대) 기계공정과를 졸업했다

- 리 회장은 7명의 형제 자매 중 4째로 태어났다. 자식중 말수는 적었으나 총명하고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다. 리 회장의 비즈니스 기질은 부친에서 왔다. 그의 부친은 중국 최초의 사영사업가인 거티후(個體戶)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1978년부터 개인사업을 시작한 리 회장의 부친은 한 때 십여명의 직원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당시는 개혁개방 정책이 아직 시작하기도 전이라 사영기업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하지만 리 회장의 부친은 곧 세상이 바뀔 것을 자신했고, 당시 10세의 리 회장은 부친의 이러한 헤안이'대세'를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줬다고 회고한다. 80세가 넘는 리 회장의 부친은 아직도 향후 20년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한 리허권은 당시 장사 보다는 정치인이 되어서 입신양명하기로 결심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정부(政務)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한 리허권은 5만 위안이라는 자본금으

로 창업의 길로 나서게 된다.

■ 1988년, 리허권은 대학 교수들의 보증으로 빌린 5만 위안으로 베이징 중관촌에서 전자제품 도매업으로 창업을 하게 된다.

- 중국판 실리콘 벨리로 성장한 베이징 중관촌은 우리의 용산전자상가와 같은 IT제품의 집산지였다. 리허권은 이곳에서 전자제품 및 부품 도매상으로 장사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완구, 생수 등으로 경영 항목을 확장했다. 약 6년간의 중관촌 사업 결과, 1994년에는 17명의 사업 파트너를 보유한 사업체를 보유할 수 있었고, 자본금은 8천만 위안까지 늘어났다.

2. 에너지 사업의 시작

■ 1994년에 한녕(漢能)을 설립하여 에너지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전환하기에 이른다.

- 적지 않은 규모의 자본금을 축적한 26세의 청년 사업가 리허권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한다. 당시 그의 고교 동창은 중국에서 막 시작된 주식시장을 염두에 두고 곧 상장을 앞두고 있는 중국기업에 투자하여 이익을 노려볼 것을 제안했다. 실제 그는 수력발전과 관계있는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눈여겨 두고 전국 각지의 수력발전소를 탐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수력발전이라는 사업이 중국과 같은 발전도상국가에서는 꽤 성장가능성이 큰 사업인 것을 자각하기 시작한다. 그는 곧 기업투자 계획을 포기하고, 수력발전업에 직접 뛰어들어 회사를 세우기로 결정하게 된다. 리허권은 1천만 위안의 자금을 동원하여 그의 고향인 하원시 동강(東江) 상류에 있는 한 수력발전소(발전 용량 1500kW)를 매입하게 된다. 이것이 한녕그룹(당시 회사명:華睿集團·화루이그룹)의 시작이었다.

■ 이후 리 회장은 2009년까지 자신만의 방법으로 국유기업이 독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전력업 분야에서 M&A를 통해 한녕의 사업영역을 점차 확대해왔다.

- 중국 내에서 전력사업은 자본, 기술집약 산업이며, 또한 국유기업이 독점 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그는 광동성, 청해성, 절강성, 광서자치구 등지에 산재한 소규모 수력발전소를 매입하거나 신설하기 시작했다.

■ 당시 화루이 그룹(한녕의 前身)은 2003년에 민영기업 최초로 중국 내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매입한 것을 계기로 국내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 리회장은 2000년 8월 28일, 광동성 동강무정(木京) 수력발전소를 착공했으며, 2002년 4월에는 동 발전소에 처음으로 송전망을 설치했다. 그 결과, 2003년 기준

으로 3만kW 규모의 광둥 무정 수력발전소와 1500kW 규모의 하원 동장 수력발전소를 보유하게 된다.

- 2003년 7월, 리 회장은 12억 위안의 자금을 동원하여 황하 상류에 있는 청하이어나 수력발전소를 매입하였는데, 이는 중국 역사상 민영기업이 가장 큰 규모의 수력발전소 매입 건으로 중국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 지금의 한녕 그룹이 있게 된 계기는 중국정부의 광차이(光彩)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규모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뛰어 들면서 부터이다.

- 공산당 중앙통일전선공작부는 전국공상연합회와 손잡고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빈민농가 지원사업인 광차이사업을 실시했다. 농업용수와 전기의 원활한 공급이 사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WTO 가입직후였던 당시 중국은 전력생산이 경제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송전을 실시했다. 광차이 사업에 수력 발전용 댐이 포함됐다. 그중 가장 큰 구상이 물살이 빠른 운남성 진사강 유역에 8개의 100만kW급 수력발전소를 만드는 것이었다.
- 2002년 4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동 프로젝트를 확정했고, 운남성 정부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결정한다. 리허권은 모든 재산 전부를 이 건설사업에 투입했다. 총 8개의 100만kW급 수력발전 프로젝트 중 6개가 리허권이 이끄는 당시 화루이 그룹에게 낙찰되었으며, 발전용량 1400만kW, 총 투자액 750억 위안에 달하는 거대 프로젝트였다.

■ 리 회장은 민영기업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데 분투해야 했으며, 수주한 6개 프로젝트 중 유일하게 남은 진안치아오(金安橋)가 마지막 희망이었다.

- 당시 운남성 주요 프로젝트 대부분을 알려지지 않은 화루이 라는 민영기업이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앙정부는 크게 당황했고 주무부처인 발전개혁위원회는 법원의 힘을 빌려 운남성의 결정을 무효화하려 했다.
 - 당시 중국정부는 화녕, 화떠옌, 다탕과 같은 국유 에너지(전력, 석탄, 석유)기업을 설립하여, 주요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하였다.
- 결국 우여곡절 끝에 낙찰받은 5개의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반납하게 되었고, 운남성 리강에 위치한 진안치아오만 남게 되었다.

■ 진안치아오 수력 발전소는 146억 위안이 투자되어 착공(2005.9)한지 7년만에 240만 kW 용량으로 2011년 3월에 완공되었다.

- 댐 길이 640m, 높이 160m 수준이며, 저수용량은 9.13억m³로 연간 발전량은 114.17억kW/h 수준이다.

- 진안치아오 발전소의 성공은 중국정부가 민간기업도 대규모 인프라 및 SOC 건설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중국의 장기 지역개발 정책인 서부대개발 정책 중 중요사업인 서전동송(西電東送·서쪽에 만든 전기를 동부로 전송) 프로젝트에서 민간기업 참여 대표사례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

<사진> 운남성 리강 진안치아오 수력발전소



자료: 한닝그룹 홈 페이지 (2015.5)

3. 종합 에너지 기업을 향한 첫 번째 변신

■ 제2의 성공 신화를 위해 한닝은 신사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 2009년초 리 회장은 수력으로 시작된 청정에너지 사업군을 확대하기로 마음 먹고, 전력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를 차세대 사업군으로 결정한다. 태양광 전지 기술은 박막전지와 결정질 실리콘 두 종류가 있었다. 문제는 투자 원가와 광전환 효율이었다. 리 회장이 태양광을 고민하던 2009년에는 박막전지의 우세가 크지 않았다. 게다가 박막전지의 생산원가와 기술요구 역시 높은 수준이었다. 게다가 시장보급률조차 많지 않아 기존 태양광 전지 업계에서 보는 박막전지의 전망은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리 회장은 한닝 에너지의 갈 길을 박막 전지로 결정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리 회장의 결정을 두고 '미친 자의 후회할 결정'이라는 혹평을 쏟아 내기도 하였다.
- CIGS 박막태양전지: 유리나 알루미늄 판에 구리·인듐·갈륨·셀레늄을 증착해 만든다. 얇은 필름형태로 건물 외벽과 창문 등에 적용 가능해 차세대 태양전지로 불린다. 고온 환경에서 기존 결정질 태양전지에 비해 효율감소가 적어 중동, 사막 등 선벨트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주류인 실리콘 기반의 태양전지보다 생산단가가 30% 이상 저렴하지만 광전환 효율은 기존 결정질 태양전지(18~20%)

보다 낮다. 하지만 최근 삼성SDI, 솔라프론티어 등 기업이 16%대 효율을 달성하면서 상용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전자신문, 2014.7.14)

- 리 회장이 박막태양전지를 선택한 배경은 아무나 쉽게 쫓아 올 수 없는 기술이었는데 있었다. 개발을 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기술을 투자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면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정을 한 리 회장은 독일의 Solibro, 미국의 MiaSole, Global Solar Energy, Alta Devices 등 박막태양전지 기술을 보유한 선진기업을 매입하기 시작한다. 단순한 기술 수입에 그치지 않고 자체 R&D에도 힘썼다. 2015년 기준으로 한닝그룹이 보유한 기술특허는 2천개에 달한다.
- 한닝홀딩스는 그룹 내에 수력, 풍력, 태양에너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 청정에너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거 확보하고 있다. 2004년에는 신에너지연구소를 설립해 2000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앨런 맥디아미드를 수석과학자로 초빙하기도 했다. 현재 한닝홀딩스는 신에너지 분야에서 200개에 육박하는 특허를 신청했으며, 이중 발명 특허가 60%를 차지하는 등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진> 박막태양전지 모듈로 둘러싸인 화닝 본사건물



자료: 한닝그룹 홈 페이지 (2015.5)

■ 중국정부의 신홍산업 육성 정책 역시, 한닝의 도약에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 중국정부는 8대 신홍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지정하여 전폭적인 지원(금융 및 정책)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중 박막태양전지는 5개 산업(첨단기술, 신에너지, 첨단장비, 신에너지자동차, 에너지절감·오염감소)과 관련이 있어 미래 잠재력이 밝다.
- 2008년 1월, 이전 화루이에서 한닝으로 사명으로 변경한 한닝그룹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 2011년 11월 19일, 광둥하원 규기박막 태양광전지공장을 완공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태양전지 사업을 시작한다

- 2012년 말에 한닝 그룹은 중국 내 8대 태양광 박막 생산기지를 모두 완공했는데, 총 생산규모는 3GW(300kW) 수준으로, 미국 내 최대 태양광전지 회사인 FirstSolar를 추월하였다. 즉 세계 최대 박막태양전지 기업으로 부상한 것이다.

■ 또한 2012년에 홍콩 상장사 매입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 기반을 마련했다

- 한닝 그룹은 1996년 1월에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태양광기술기업인 홍콩보양태양에너지기술지주유한공사(香港鉑陽太陽能技術控股有限公司)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한다. 2010년에 11억 위안을 투자하여 동 회사 지분 29.4%를 매입한 한닝 그룹은 다음해 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50.65%까지 높여 절대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이후 중국 중앙정부의 승인을 획득하여, 홍콩 상장사 명칭을 2012년 8월에 한닝박막발전집단지주유한공사(漢能薄膜發電集團有限公司·Hanergy Thin Film Power Group Ltd.)로 변경하였다.

■ 홍콩 상장사는 발전을 거듭하여 2014년 매출액 96.15억 홍콩달러(약 1조 3524억원)로 전년비 193% 성장세를 기록했다

- 홍콩 상장사는 2014년말 현재 자산이 249.75억 홍콩달러(약 3.5조원)에 달한다. 또한 리허권의 지분율은 80% 수준이다.

<표> 한닝박막발전집단지주유한공사 경영실적

(단위: 홍콩 만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매출액	344467.3	256464	275646.3	327442.5	961502.8
(세전)영업이익	153303.7	96754.3	166615.8	232829.9	429074.4

자료: 同花順 D/B 및 한닝박막발전집단지주유한공사 홈 페이지(2015.5)

4. 리허권이 꿈꾸는 한닝의 미래

■ 현재 한닝 그룹은 직원 1.5만명의 수력, 풍력, 박막태양전지발전에 종사하는 종합 신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해 있다.

- 그룹 수력발전 용량은 6GW 이며, 풍력 발전 규모는 131조W이다. 태양광은 사천, 광둥, 해남, 절강, 산둥, 강소 등에 생산 및 R&D 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3GW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중국 내 주요 지역과 EU 등 세계 각지에 협의

중인 태양광 발전설비 규모는 총 10GW에 달한다.

- 한닝홀딩스는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와 충전설비 공급 관련 협력 계약을 맺은 상태로, 양사는 베이징 왕징(望京)과 상하이 자딩(嘉定)에 태양광 충전설비를 한 곳씩 세워 가동 중이다. 테슬라가 중국 사업 파트너로 한닝홀딩스를 선택한 이유로 박막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가진 세계적인 경쟁력과 영향력을 꼽았다.
- 2014년 2월에는 미국 MIT에서 발행하는 기술분석 잡지 <MIT Technology Review>에서 글로벌 최고 혁신기업 23위에 선정된 바 있다.
- 2014년에 개봉한 할리우드 공상과학 영화인 트랜센던스(Transcendence, 주연 조니덱, 감독 윌리퍼터스) 한 장면에서 한닝에너지(Hanergy)의 표식이 선명한 태양광 집열판이 등장한다. 이는 한닝의 태양광 사업이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방증 중의 하나일 것이다.

■ 리 회장은 미래 먹거리로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전기자동차를 꼽았다

- 2012년 리 회장은 볼보자동차를 인수한 민영사인 리수푸 지리자동차 회장과 한닝의 기술이 포함된 태양광 전기자동차를 개발하기로 합의한다. 현재 한닝 그룹은 5곳의 자동차 회사와 설계 단계부터 협력하기로 하고, 태양광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 2015년말에는 최소 2~3의 시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의 꿈은 미래에 한닝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가진 태양광 자동차, 무인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다.
- 베이징 올림픽산림공원 북원구에 위치한 한닝그룹 본사 외벽은 박막태양전지로 둘러싸여 있다. 실제 본사 소요 전력의 20%는 태양광으로 자급자족하고 있으며, 추가 건물과 태양광 설비가 완공될 경우, 소요 전력의 100%를 자급할 계획이다.

■ 반면, 최근 2~3년간 급성장을 기록한 한닝을 불안한 시선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 2015년 5월 20일, 한닝그룹 홍콩 상장사 주가는 하루 만에 47%가 폭락하며 거래가 중단됐다. 하루만의 하락으로 한닝의 시가총액은 190억 달러(20.8조원)가 사라졌다. 상장사 지분 80%를 가진 리 회장의 자산가치도 순식간에 1167억 홍콩달러(약 16.5조원)가 증발했다. 한닝은 최근 2년간 주가가 600% 급등하면서 거품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주가 폭락 전 한닝의 시가총액은 400억 달러로 미국의 최대 태양광업체인 퍼스트솔라의 6배 이상이었다.
-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계 태양광시장과 상장사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주가가 과대 평가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상장사의 최대 고객은 모회사인 한닝그룹이다. 그룹사는 상장사가 공급한 박막을 활용해 태양광 패널을 만든다. 또한 후강통(상하이와 홍콩 간 증시 교차거래제도) 시행 이후 급등한 이른바 후강통 테마

주'의 거품이 빠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 상장사 매출 대부분이 한닝그룹에서 나오는 사업구조에 더해 유통 주식수가 적다는 분석도 있다. 리 회장이 지분 80%를 가진 만큼 유통 물량수가 적어 거래 물량에 따라 주가의 등락이 상대적으로 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 폭락 하루만(5월 21일)에 한닝 그룹은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각 사업부문의 운영도 양호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자금상황도 건전하고 대출금 만기도 넘긴 것이 없다며 주가폭락을 초래할 만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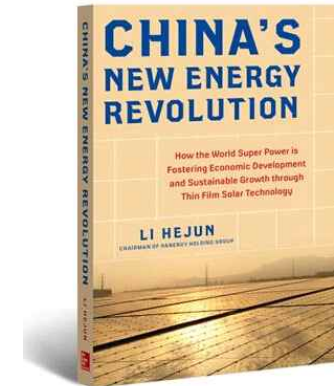
■ 리허쥔이 꿈꾸는 미래는 태양광 산업 1위의 중국, 실생활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태양광 에너지 시대의 개막이다

- 리 회장은 2014년에 <중국이 선도하는 세상: 중국에서 일어나는 제3차 공업혁명>이라는 저서를 출간했다. 이와 관련한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그는 현재 태양광 산업은 유럽이 1위, 미국이 2위, 중국이 3위 수준이지만 10년 내 중국이 1위의 자리를 점유할 것으로 확신했다.
- 또한 앞으로 태양광 에너지는 휴대전화, 의류, 자동차 등 우리 실생활 가까이에서 사용되고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 리 회장의 신념중 하나는 '19법칙'으로 '기업은 90%의 가능성에 투자하면 10%의 성과를 얻지만, 10%의 확률에 도전하면 90%의 성과를 올린다'라는 것이다. 그는 쉬운 90%보다 어려운 10%에 속하고 싶다고 자신의 가치관을 강조했다.

■ 리 회장은 기술개발을 위한 자사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닝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다

- 최근의 R&D 추세라면 향후 5~10년간 한닝 에너지 그룹의 기술에 대적할 기업은 없을 것이라 자신했다.
- 리 회장 사무실 서가 맨 앞에는 두 권의 책이 꽂혀 있다. 한 권은 프랑스 사회심리학자 귀스타브 르봉(Gustave Le Bon)이 쓴 군중심리학 경전인 <The Crowd>와, 나머지 한 권은 GE의 CEO 잭웰치 자서전이다. 아마도 리 회장이 꿈꾸는 미래의 밀그림은 이 책들이 말하고 있는 것 같다.

<표> 리허쥔 회장의 저서(영문판)



자료: 한닝그룹 홈 페이지 (2015.5)

참고문헌 및 참고 자료

华股财经 (<http://money.huagu.com>)
搜狐财经 (<http://business.sohu.com/>)
同花顺网络信息股份有限公司 (<http://stockpage.10jqka.com.cn>)
Solar as Industrial Revolution (The New York Times. 2014.11.30)
뉴스핌 (2014.5.8.)
중앙일보 (2015.4.11)
한닝그룹 홈 페이지 (www.hanergy.com)
한닝박막 홈 페이지 (www.hanergythinfilmpower.com)

- 마침 -